돌에서 망상 깎아내기 33년

산문밖의 禪

돌안경 제작자 이성옥 씨

자수정은 나의 도반…'바로 보는 눈 만들자' 화두
정진하는 마음으로 4년전부터 틈틈이 염주 제작

서울 동작구 흑석동 54번지.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재래식 돌안경공장 가운데 한 곳이다. 이 돌안경공장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자수정을 예리한 정으로 깎아내리고 다듬는 소리로 바쁘게 움직인다. 또한 작업장 곳곳에는 경주, 괴산, 양양 등지에서 캐내어진 자수정 덩어리들이 가득 쌓여 있다.

이곳에서 33년을 하루같이 인체에 가장 가까운 렌즈 만들기에만 심혈을 기울여온 이성옥씨(50). 그에게 있어서 선은 온갖 세속적인 생활을 훌훌 털어버리고 작업실에 들어앉아 수천년동안 땅속에서 묻혀있던 자수정과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된다.

작업이 곧 번뇌 씻는 일

각종 예리한 정으로 자수정에 쌓인 티끌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일련의 공정들이 바로 그의 생활이고 그 자체가 선인 것이다. 이렇게 자수정에 묻어 있는 온갖 티끌을 벗겨내는 공정이 무명으로 가득 쌓인 자신의 번뇌를 씻어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세월동안 땅속에 말없이 묻혀있던 천연의 자수정을 대하고 있노라면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다.

'어떻게 하면 인체에 가장 가깝고 정밀한 렌즈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이씨가 풀어야 할 화두인 것이다.

그는 안경이란 단순히 현상적인 물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올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시절부터 다양한 손재주를 지녔던 이씨는 신비한 자수정에 매료돼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의 실타래는 33년이란 시간속으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첨단 과학문명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안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인간과 가장 가까운 자연석을 이용한 렌즈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씨는 그 이유를 유리렌즈보다 돌렌즈가 빛의 투시율이 뛰어나고 유해한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한편 눈의 피로를 최소화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을 둘로 보지 않는 이씨는 자수정을 단순한 돌덩어리로 보아서는 안되고 인간과 동일한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그 숱한 역경의 세월을 지내왔고 나름대로의 독보적인 영역을 다져온 그이지만 작업장에 들어서면 언제나 처음 작업장에 들어설 때처럼 숙연해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의 렌즈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의 작업방은 수행납자들이 용맹정진하는 선방처럼 진지함으로 가득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금강과 같은 집념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올바른 시각(정견)과 자연의 순리가 하나가 될 때 선의 극치를 맛볼수 있다고 말한다.

남달리 손재주가 출중했던 이씨는 재질이 강한 자수정을 갈고 닦아 렌즈를 만들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돌을 갈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티끌없는 깨끗한 세상 보여주기'에 일생을 바쳐온 것이다. 그래서 이씨는 돌을 하나의 생명체이자 자신의 친근한 벗으로 생각한다.

"돌은 오묘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산란하면 산란한대로, 고요하면 고요한대로 곧바로 표현하니까요. 항상 모든 욕망을 던져버린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야 올바른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30여년동안 쉼없이 돌안경 만들기 외길 인생을 걸어 온 그는 어떤 예술이든지 그것에 임하는 작가의 마음이나 태도가 그대로 작품에 들어나는 법이라며 돌을 깎아 렌즈를 만들 때는 어느 때보다 진실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일반 유리보다 강도가 2배나 강한 자수정으로 수십 종류의 돌렌즈를 일일이 손끝으로 깎으려면 이러한 자세는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오늘같이 루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은 하루에도 몇번이고 이 작업장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모든 시름을 딛고 하나의 돌렌즈가 탄생되는 순간과 제 주인을 만났을 때의 환희심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집중력 · 수행력 필요

온갖 망상들을 집어던지고 각고의 시련끝에 하나의 완성된 렌즈가 탄생했을 때는 그동안의 쌓인 모든 시련을 한순간에 잊게 한다고 그는 덧붙인다.

"돌렌즈를 만드는 사람이 자수정 속에 빠져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돈독한 신앙심까지 뒷받침된다면 돌과의 싸움은 그리 어렵지만 않습니다."

강도높은 자수정을 1.80㎜까지 정확하게 손끝으로 다듬어야하는 세밀함, 이것은 돌안경을 만드는 이씨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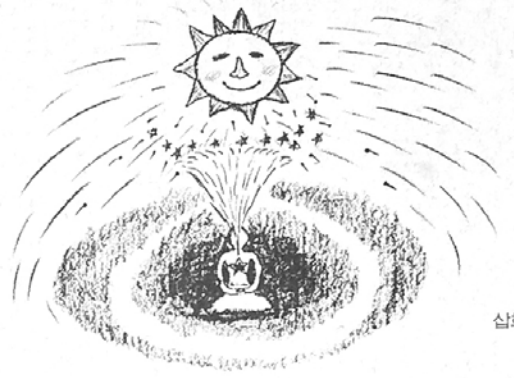
강도높은 자수정을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수십종류의 렌즈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씨는 강한 집중력과 수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이씨의 손과 눈은 언제나 세밀함, 정확함에 길들여져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씨를 장인으로 남아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수행자는 수행자다워야 하고 장인은 장인다워야 합니다. 장인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용맹정진할 수 있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년전부터 이씨는 틈틈히 염주(108염주)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그가 불구류 제작을 시도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현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신행의 일환이다.

염주 한알 한알을 지성으로 다듬고 깎아내는 그의 모습은 흐트러지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납자를 연상케한다.

김중근 기자



삽화 · 이기선

'채움 · 비움' 조율하는 생활해야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㊶

반야(般若)

깨침의 슬기라야 생명력 있어

생명은 힘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뿌리도 생명의 힘을 빨아 올린다. 미세한 잔뿌리가 흙속의 자양분을 흡입하는 힘이 없다면 거목은 얼마가지 않아 말라 죽게 된다. 그렇듯 모든 자연에는 생명의 힘이 있어야 한다.

생명의 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힘의 작용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비하다고 한다.

힘은 움직임이다. 가만히 있는 것은 힘이라 할 수 없다. 눈에 있으면 보는 힘, 입에 있으면 먹는 힘, 귀에는 듣는 힘, 발에는 걷는 힘, 이처럼 힘의 묘용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만큼 많은 영역에 작용하고 있다.

자연은 힘의 보고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살아 있고, 움직이고, 또한 변이의 작용을 쉴새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변이란 옮겨가고 옮겨오는 모든 힘의 총체를 말한다. 변이없는 자연은 있을 수 없다. 자연은 부동한듯 하지만 무한한 힘을 대사하고 있다. 보내고 들이고 하는 힘의 작용을 보이지 않게 하니까 부동적으로 표현되지만 그저 이렇게 작용도 하고 있는 것이다.

힘을 바르게 선용해야

사람은 가장 큰 것도, 가장 작은 것도 볼 수 없다. 그저 눈에 들어오는 사물만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들도 동적이면서 정적이다. 움직임이 밖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힘의 왕래와 생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무성하다고 표현될 때와 쇠멸하였다고 할 때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치우쳐 있는 힘은 위태롭고 불안하다. 힘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공부하여야 하고 그 논리에 의하여 실생활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힘을 바르게 잘 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힘의 선용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채움의 힘과 비움의 힘을 조율하여야 한다. 힘을 채우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면 충만할 수도 있다. 힘을 비우는 방향으로 가면 빈핍할 수도 있고 무력할 수도 있다. 너무 채우면 터질 것이고 너무 비우면 메말라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채움과 비움을 슬기롭게 하여야 한다.

반야란 슬기를 의미한다. 이 슬기는 깨침으로 얻어진 슬기라서 생명의 힘을 한 가운데에 놓고 쓰는 것이다. 생명의 힘을 한쪽에 기울게 하면 왕성이 아니면 쇠잔이다. 그러나 생명의 힘을 한 가운데 두고 보면 생멸이 항존하게 된다. 충족과 허멸이 연속적으로 작용하기에 무한한 힘이 나온다.

반야는 빛이다. 빛은 열기운이 고차적인 작용을 하여서 발광하게 되는 것이다. 열의 힘이 줄어들면 빛이 나올 수 없다. 빛이 나오지 않는 열은 설익은 힘이다. 힘이 열이 되고 열이 빛이 되려면 충족과 허멸의 작용을 부단히 하여야 한다. 모든 허망함이 떨어져 나가고 맑고 아름다운 힘이 하나로 뭉쳐 움직여야 밝음의 힘이 솟구친다. 이 밝음의 힘이 깨침이다. 깨침에는 청정성만 있는 것이다.

무명을 갖고있기 때문

불교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침에 있다. 이 깨침은 항상 청정한 불빛을 들어내어야 한다. 청정한 불빛이 반야광(般若光)이요 여래광명이다. 반야광이나 여래광명은 하나로의 빛이다. 어둠과 밝음의 나누어짐이 아니다. 어둠도 밝음도 없는 그저 그러한 항광(恒光)이다.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어둠과 밝음을 번갈아 가면서 사는 것은 인간이 무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명 그것으로 채우는 힘과 비움의 힘으로 작동하고 사는 것은 항광을 구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명의 한계는 어디에가도 삼도고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야광의 힘으로 채움과 비움을 계속하여도 그것은 항상 반야 그것으로 항존하는 것이다.

불교는 세속적인 눈금으로 자연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깨침과 슬기의 눈금으로 자연을 관하는 공부이다. 이러한 눈금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본래 광활하고 태평한 빛이기에 어느 허공, 은하계에 다다라 간다 해도 거기에는 얽매이지 아니하고 삼천대천은하계 허공계 무진한 세계에도 잡히지 않는 슬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과 빛의 힘을 나투도록 반야광에 다가가는 공부가 급선무일 것이다.

● 부산공덕원 개원 6주년 기념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열린마음 · 열린세상

석 용 산 스 님 강 연 및 찬 불 합 창

종교는 꼭 필요한 것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말법시대의 신앙이라
일컬어지는 지장신앙의 실체는?
중국 구화산을 지장성지로 만든
김지장 등신불은 누구인가?
내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스님께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참하시어 많은 가피 입으소서!

일시 : 불기 2539년 9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 KBS 부산홀

문의 : (051)625-2253~4 (용호동 부산은행 5층)

■ 주최 : 불교교육회관 부산공덕원
■ 후원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대한불교신문, (주)천일고속, 동아의료원
■ 협찬 : 도서출판 고려원, 문학수첩, 시와 시학사, 대한기획

불교교육회관 부산공덕원 주지 석효선 합장

중국 명문 남경 중의학대학

박사과정연수

●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 기 간 : 8박 9일
● 수료증 :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침구 · 기공)
● 인 원 : 15명 이내
● 출발일 : 1995년 9월 19일(화요일)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남경 660-7129

서울사무소 : (02) 511-2026~8 / 팩스 : (02) 511-1080